

buddhanews.com

그냥 모든 걸 근본에 놓고 들어가라! 그냥 밀고 들어가라!

25면에서 계속

공도 막 찾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너무나 무고마웠고, 그리고 그게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해 시키려고 모든 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우린 처음부터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배우러 어디로 쫓아다니고,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쓸 때면 빈손,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가서 이렇게 붙들어 줘. 그 나무들이 전부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 나무들이 전부 보살들이 돼, 길잡이가 되고.

질문자4(여) 스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이 묘한 도리를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터득해 나가야지.

질문자5(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범형제 심우회 회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에 겪었던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뻐던 마음을 저 혼자 알기에는 정말 아쉬워서 저 밑에 신축 건물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열을 전에 스님을 친견하고 나서 위암과 폐암을 앓던 제 아버님께서 편안히 잘 가셨습니다.

스님 편히 앉아서 얘기해요.

질문자5(남) 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다 못해 와서 스님을 친견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아버님께서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6일 있다가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우제를 지내고 왔는데 스님 친견하고 나서부터 그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참, 고마운 일만 생겨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 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겪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아버님의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오면 비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11시에 삼우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10시 한 40분까지 비가 왔었는데 정지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모시고 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식당에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하고 제 동생이, 그 장지에 가서 봤었는데 약간 산 밑쪽,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매웠던 자리에 있는 묘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받으러 갔더니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본토에 잡혀 돼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스님 친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몸이

크냐?' 그러니까 "큘니다" "그래, 무슨 까닭에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고 올이 없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큼니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 가지도고 이 세상을 다 거기에 한데 집어넣어서 한 몸이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티끌 하나에 다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으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전은 못 봤지만,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소립니다.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크냐고 한다면, 이렇게 크다 저렇게 크다, 말 못 할 지경이죠. 그렇듯이 택의 그 모든 것을 보는 건, 하여튼 그건 비밀이니까 살아가면서 터득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러한지, 누가 악수를 해줬는지, 누가 스쳐 갔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전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업하고 자기는 3학년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전을 해서 자꾸 여자한테 이야기 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상당히 비판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라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자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시간이 초과됐지만 질문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모든 생명의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도리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마음공부를 하시는 거는 보이지 않는 원자가 부처님, 자들이라면 입자가, 이 보살들이 나가서 다 조절을 해서 양면을 모두 해롭지 않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군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빗방이 만약에 주장자라면 주장자

나쁜 것은 좀 제쳐 놓고 좋은 생각으로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그것도 한데 넣어서 그냥 좀 탁탁 뛰어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발로 뛰어 보라 이거예요. 아, '한 발로, 한 손가락으로 버티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체는 공했다. 체는 고정됨이 없어서 항상 보고 듣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고, 그러니까 바람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구름처럼 둥둥 떠서 가는 도중이다. 우리 구름이 스러져 버리면...' 하는 얘기가, 또 막이 내리면 그뿐이라고 하는 텔런트 얘기, 뭐 별소리 다 해 가면서, 손짓 발짓 다 해 가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한 것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돌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

이 있었어. 즉 말하자면 이 세상이 범망이죠. 이 범망이 없으면 온갖 곳에서 들어와서 이거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범망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요. 이 속에서 만약에 양 개체가 대립해서 싸우면 이 집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만 무너지고 그놈들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또 인연이 돼서 또, 또, 또 간단 말입니다. 뿔로 태어나든지 또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 년이 같지 수천 년이 같지는 모 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거를 다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힘이 없다, 있다 이거를 논의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머슴아이가 왜, 물 땅방 치고 그냥 막 개구쟁이처럼 놀듯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이래라 이겁니다. 그게 뭘 내가 할 줄 모르고 알고가 없어요. 자물은 본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성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 여한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본래 불성이 있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다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 저 나무가 자기 뿌리 있는 걸 믿고 그냥 살듯이, 그냥 믿지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쭉거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나도 겉터겉이로 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아 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와서 만나고 간 뒤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다고 하셨다는 그 뜻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디? 그러니까 걸 말로 할 수가 없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이 이유를 뭘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 이유를 뭘 수가 없는 나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세요.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양 래할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단을 밟아서 꼭 그냥 쾅쾅거리고 올라오려고만 하지, 왜 그냥 뿔 줄은 모르느냐 이거죠. 어차피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형성시켜서 자기 집을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겁니까?

그럼, 그만 내려가도 될까요?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습도 없고 번뇌도 없다, 불을 자리가 없다, 체가 없다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그것은 뛰어넘는 사이가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5(남)**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 끝났습니다. 스님 더 하세요. (질문자에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지금 살아서 못하면...

질문자6(남) 시간이 초과됐는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라든가 비디오통을 통해서 스님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처음 뵈고 보니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식이 있는데 여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그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 고자 합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번인 여학생을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는데 현재 군을 제대한 뒤에도 상당히 감정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들이 지난번에 그 아파트 부근을 배회할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부모 입장인 제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도 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식이 한마음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고 선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일차적인 것은, 자식이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하면서 여건이 됐을 때 여자한테 접근하면 괜찮지만, 같은 학번이었던 그 학생은 현재 잘

만 붙들고 나가면 되지, 그걸 산산조각을 내서 이유를 붙여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이게 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는 게. 거기다가 말기세요.

질문자6(남) 그런데 학생이 지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님 난 지금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고 대답을 해 준 거지만 그 대답을 들은 대로 그냥 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모두 돌아갈 거니까요.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스님 질문을 한 게 있소? (대중 웃음) 허허허... 대답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공부 같지도 않고 뭐, 웬말처럼 생각해 되기도 할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아가야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방이 다 터져서 밭을 계단이 없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고, 또는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또 손을 잡아 주려면 잡아 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쁘고 좋은 것은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거를 알면 그

고 했습니다. 돌 아닌 일대사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요 별레 한 마리라도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고' 이랬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우리가 돌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인연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수 백 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런데 용기가 없죠, 패기가 없죠, 관습이 많죠, 욕심이 있죠,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말려서 뛰어나가려 해도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 집에 아침에 도둑이 들었는데 전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친정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부 하는 사람 같으면 항상 울타리를 쳐 놓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 만나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놀라니까, 모두 그저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돌이 아니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야.

지금 지구 대기권에서 이렇게 땅이 쳐져 있는 거는 범망이란 말입니다. 범망! 우리 몸에도 범망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佛學 居士를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흥종 경남경주명장, 중앙총회위원 역
- 원해문보대학교 대학원교수
- 원흥문보대학교 객원교수
- 원어려암 주지

[본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성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깊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행법요집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 제 1장-기본학습
- 제 2장-중요경전
- 제 3장-불공편
- 제 4장-진언과 다라니
- 제 5장-각종발원문
- 제 6장-기도제법수기
- 제 7장-불사출판수지공덕
-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 제 9장-자가기도법
- 제 10장-불교기초조직
-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여래종 입종 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진(여권용) 4매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 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덕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총목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입종 안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 정 청암	부 총 정 화주
총무원장 지공	원로의장 청해
감사원장 만봉	총회회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총회부회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총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승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의전부장 혜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총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택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탈난 관세구세 병고역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손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 100번지 각원사 해일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